

시론: 한계에 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고들 난리다. 대통령이 어찌면 그럴 수가 있고 재벌이 그럴 수가 어디 있으며, 공무원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한다. 잘 나가던 아시아 4룡이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실이 되었는가 탄식한다. 그러다가 퍼뜩 놀라 잘린 목으로 돌아보며 우리 회사가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는가 부르짖는다. 하늘이 무너진 것일까? 누구에겐가 전국민이 단적으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일까? 왜 갑자기 배신감을 이야기하고, 멀어져 버린 꿈을 안타까이 바라기하고, 암담한 장래에 몸서리치고들 있게 되었을까?

그러나, 새삼스러운가? 돈을 뿌리는 후보를 국회의원에 뽑아놓을 때는 언제고 돈을 먹는 국회의원에 배신감을 느끼는가? 내가 아쉬우면 공무원에 돈을 쥐어주고 세상 참 정이 있어 편하다고 하다가 이제는 속속들이 썩었다고 한탄하는가? 돈있고 바쁘지 않은 이상한 사람만 골라서 지방의원 시켜놓고 이제 와서 저질이니 건달이니 비하하는가? 세무서와 짜고 탈세 못하고는 돈 못버는 세상 만들어 놓고, 권력에 뒷돈만 대면 땅짚고 헤엄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비자금 빼돌리는 재벌 욕하는가? 복잡해야 해먹는다는 공무원들에 봉투 갖다 바치다가 이제 와서 국가경쟁력이 중국

2 시론: 한계에 서서

보다도 필리핀보다도 밀줄이라고 당황해 하는가? 나 불리한 일만 하면 정부에든 기관에든 사리불문하고 악악대다가 이제는 도리어 쫓대를 못세운다 돌을 던지는가? 동창 찾아다니며 서로 봐주기를 의리와 우정으로 알고 동향사람 밀어주기를 애향심으로 알다가 이제와서 PK끼리 나누어 먹기한다고 한하는가? 평균 개인생산성은 선진국의 4분의 1인데 임금은 7,80% 따라가게 투쟁해 놓고 일생 책임 안져준다 해댈 수 있는 것인가? 리포트 베끼며 공부해 놓고, 기술투자할 돈을 관청이며 은행 로비에 호화 술집에 죄 뿌려놓고, 이제 와서 기술이 딸린다고 핑계대는가? 과연 이 모든 것이 불운인가? 운세인가?

경고는 있었다. 행주대교 주저앉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다리의 기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둥을 살폈어야 했다. 격포에 폐리 침몰하고 구포에 기차 추락하고 목포에 비행기 추락했을 때, 우리 사회의 질서를 건져 올렸어야 했다. 종로 한복판 통신구가 줄줄이 불타고 아현동에 가스터지고 대구에서 큰길 공사장이 가스폭발해 차와 사람이 날아갔을 때, 날아간 우리 겸손과 신중을 되찾아 왔어야 했다. 이도 저도 다 아니더라도 최고호화라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라도 우리의 허상을 깨닫고 실종된 우리의 양심을 파내었어야 했다. 대통령은 '우째 이런 일이' 만 연발했어도 지혜로운 국민들은 뿌린데서 거둔 필연적인 결과로 인식하고 자기개혁의 몸부림이 일어났어야 했다.

도처에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 여기를 추스리면 저기가 터진다. 저기를 끌어 올리면 여기가 가라 앉는다. 모두 들고 서 있으려니 무릎이 실하지 못하고 짐 하나 내려 놓자니 땅이 죄 젖어있다. 동무를 부르려니 도둑이 같이 오고 도둑을 쫓자니 동무가 다친다. 금융실명제는 강화해야 한다고도 하고 완화해야 한다고도 한다. 사교육은 금해야 한다고도 하고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도 한다. 교통문제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하고 차를 줄여야 한다고도 한다. 지역감정 문제는 섞어야 한다고도 하고 아예 나누어 주면 될 것 아니냐고도 한다. 시장개방하자니 철없는 졸부들이 벼

르고 있고 국산 보호하자니 기업이 담합하여 누워서 장사한다. 비싸게 팔자니 품질과 기술이 안되고 싸게 팔자니 임금이 안된다. 안 떼어 주자니 공사를 못따고 떼어 주자니 부실공사에 후환이 두렵다. 뜯어먹자니 양심이 아프고 안 뜯어먹자니 동료가 무섭고 가족이 운다. 안 가르치자니 자식에게 죄를 짓고 가르치자면 나는 또 누구의 등을 쳐야 하나? 전방위에서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우리는 시스템적 한계에 와 있는 것이다. 다음에 올 것이 시스템적 붕괴, 즉, 카타스트로피가 아니길 간절히 바랄 수 밖에 없다.

세계관의 문제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각 방면의 문제가 우연히 동시다발하겠는가? 하나의 쓴 뿌리에서 여러 송이의 재앙의 꽃이 핀 것이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런 저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심오한 문제 하나일 듯 싶은데, 사람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아도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세계관 문제란 원래 대개 그러하다. 그러나 잘못을 모르는데 우연히 타개할 수는 없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우연히 발전할 수도 없다.

말의 언저리를 보면 세계관이 보인다. 다리가 무너지자 부시장이 현장에 달려왔고, 기자들이 물었다. 다른 다리는 위험한 것 없겠느냐고. 시민들은 기왕 무너진 다리를 걱정할 여유가 없이 불안했던 것이다. 그런데 부시장의 대답이 엉뚱했다. 다른 다리보다는 우선 여기 사고 현장을 빨리 수습하여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켜드리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었다. 아하, 그런 식이니 다리는 무너진 것이었다. 백화점이 무너지고 추가붕괴가 걱정된다고 하는데 구조대원들은 지하통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모여 서 있었다. 아나운서는 "용감한 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 있다고 해설했다. 필요없이 많은 인원이 용감하게, '설마' 하며 들어가 있었다. 아하, 사실 그 백화점주인도 바로 그렇게 용감했던 것이었다. 대통령의 차남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짧고 경험없어' 그랬다고 이해를 구했다. 다음 대통령 뽑을 때는 '짧지 않고 경험많은' 아들을 두었나 살펴 보아야 하나? 이 말로부터 그동안 무슨 착각을 하고 그랬는지 갑자기 잘 알게 된다. 아하, 말로만 듣

4 시론: 한계에 서서

던 왕자병이 이것이로구나.

행동도 그 언저리를 보아야 세계관이 보인다. 직장에서선 멀쩡해서 모르고 청사에서서도 늘 바쁜 듯하여 흠잡을 데 없다가도 언제 어디서 활약하는지 담배 소비량이 1등, 술 소비량이 3등이요, 그래선지 40대 과로사가 또한 1위요, 교통사고 사망율이 세계 최고인데, 언제 돈을 벌었다고, 아니면 세계화의 노력인지, 고급 위스키 소비도 세계 3위라 한다. 남자들에게 질 수만은 없는지 우리네 여자대학은 외국인이 보면 패션무대 같다고 하고, 2천만 원 짜리 수입가구 사가는 건 죄 사모님인데, 고상하지 못하게 또 낙태율도 세계 1위이다. 동시다발한 어려움은 시스템적 문제라 했는데 이런 좋지 못한 일만 골라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메달권에 들었으니 시스템적 방종인가?

아마 그럴 것이다. 우스개 소리 같지만 엄연히 통일성이 있으니 시스템적 방종일 것이다. 그 시스템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통일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온 문제들이다. 다 마음 착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 착하고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요, 세계관의 문제이다. 무슨 몫쓸 세계관을 국민적으로 가졌길래 그럴까? 가진게 아니라 못 가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다.

세계관이 비었다 하면 흑자는 세계관의 정의를 들고 나와 말이 안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되지 않은 지식의 잠동사니로는 지식인이 되지 못하듯, 조직되지 않은 세계관, 의미화되지 않은 가치관, 앞뒤를 맞추어본 적 없는 공허한 판단력, 무질서 무원리 무원칙의 기회주의적이며 관성적인 삶의 계획 등에 대하여 비어있다는 표현보다 더 잘 맞는 말이 있을까?

그래도 전에는 인격적 통일성이 있고 사회적 규범이 있는 듯 했다. 그것은 '잘 살아 보세'였다. 그런데 이제 잘 살아 보니 허무하고 허탈하다. 야근, 철야를 20년 넘게 밥먹듯 하다 보니 인생에 다른 것이 있는지 잊어 먹었다. 어느 덧 우리 중년들은 시간이 남는 것이 두려워 야근을 하고 일이

없으면 회사 근처 술집에서라도 '정치'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 집에 일찍 가면 무얼 해야 하는가 말이다. 옛날 이야기지만 34년씩 재수하여 동경대학에 들어 간 일본청년들이 그 다음은 무얼 해야 하는지 몰라 자살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 가족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씬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중간에 끼여, 젊은 세대는 이 모든 것을, 아니 '삶'이라는 것을 새로이 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필자가 세대차 탓으로 비뚤게 보는지 몰라도 그들은 그 창조를 별로 잘 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것이 어디 쉽겠는가? 실체는 모르고 이파리만 무성한 포스트모던 정신 외에는 통일된 정신이 없는 처지에.

이 모든 이야기에 예외는 있다. 시론을 쓴다는 것이 낯두리가 되긴 했지만 단지 전체 역학적 흐름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로렘나무 아래의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도 칠천명의 '예외'를 거론하셨다. 이럴 때 예외는 한없는 위로이며 소망의 근거이다. 그 예외의 씨앗들로 부터 우리는 우생학적인 작용이 일어나 강건한 종자가 내일에 편만해지기를 원한다. 그 우생학적 작용은 바로 리더쉽이다. 이 사회의 예외적으로 건전하고 속이 찬 사람들의 리더쉽. 그 이외의 무슨 출구가 이 딱딱한 시점에 주어져 있는지 필자는 아무리 연구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청년들을 리더로서 키워야 한다. 기독교세계관으로 속을 채운 리더쉽, 이는 21세기를 앞둔 한국교회의 절대절명의 구국적 전략이다. 그래서 주의 청년들을 새벽이슬같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새벽이슬이야 말로 메마른 광야의 칠혹같은 밤에 은혜처럼 내리는 유일한 생명의 소망이었던 것이다. □